

작자미상

여보시오 돈있다 유세하지 말고
공부 많이했다고 잘난척하지 말고
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소.
명예있다 거만하지 말고 잘났다 뽐내지 마소.
다 소용 없더이다.
나이들고 병들어 자리에 누우니 잘난 사람 못난 사람
너 나 할것 없이 남의 손 빌려서 하루를 살더이다.
그래도 살아 있기에 남의 손으로 끼니 이어야 하고



똥 오줌 남의 손에 맡겨야 하니
그 시절 당당하던 그 모습 그 기세가 허무하고 허망하기만 하더이다.
내 형제 내 식구 최고라며 남 업신여기지 마소.
내 형제 내 식구 마다하는 일,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그 남이 눈 뜨고,
코 막지 않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입으로 죄짓지 않고 잘도 하더이다.
말하기 쉽다 입으로 돈 앞세워 마침표는 찍지 마소.
그 10배를 준다해도 하지 못하는 일, 댓가 없이 베푸는 그 마음과
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자리 지키는 그 마음에 행여 죄될까 두렵소이다.
병들어 자리에 누우니 내 몸도 내것이 아니온데 하물며
무엇을 내것이라 고집하겠소.
너 나 분별하는 마음 일으키면 가던 손도 돌아오니
길 나설적에 눈 딱 감고 양쪽 호주머니에 천원씩 넣어
수의복에는 호주머니가 없으니 베푸는 마음을 가로막는 욕심 버리고
길가 행인이 오른손을 잡거든 오른손이 베풀고
왼손을 잡거든 왼손이 따뜻한 마음내어 베푸소.
그래야 이 다음에 내 형제 내 식구 아닌 남의 도움 받을 적에 감사하는 마음,
고마워 하는 마음도 배우고 늙어서 남에게 폐끼치지 않고 고옴게 늙는다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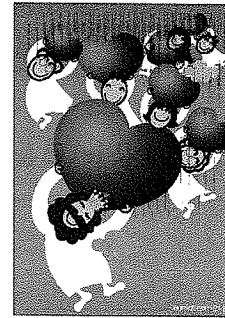


◀그땐 그랬지▶ **썸 포스터**

“방금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인기 가수 ***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”. 어느 지방이든 이류극장에서 여러 가수들이 나와 노래하며 코메디를 하던 썸에는 반드시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. TV가 흔치 않던 시절덕에 썸 값으로 당대의 가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.
‘싸우며 일하자’며 살아가던 회색 빛 시절에 화려한 가수들을 직접 본다는 것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는 청량제였습니다. 김세레나, 안다성, 송춘희, 문주란, 위키리... 이제 그들은 가수가 아닌 옛 기억을 따스한 추억으로 만들어준 사람들로 남아있습니다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'2004년 교회생활' '바보 같은 교회'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6권 17호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4년 4월25일
☎520-9464, 369-5077,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ca.to		

일상을 산다는 것은



어떤 사람이 산속에 은둔하여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
다. 그가 하루 종일 기도만 올리는 동안 한 농부가 그에게
식사를 날라 주었습니다.

어느 날 스승을 찾아가 이런 수도 생활이 과연 올바른 것
인지를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스승은 "당신에게 밥을 날라
다 주는 농부를 하루만 따라다녀 보라"고 말했습니다. 농부
에게 무슨 기막힌 해답이 있으리라 생각한 그는 몰래 농부
의 뒤를 밟았습니다.

그러나 농부의 생활이란, 아침에 일어나서 "주여!" 이렇게
한마디하고는 하루 종일 뒤통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, 저
녁에 집으로 돌아와 역시 "주여!" 하고 한 마디하고는 꿈아떨어져 잠자리에 드는
것이 전부였습니다. 이것을 본 그는 기가 막혀 스승을 찾아가 "그는 하루 두 번
주님을 찾더군요" 하고 말했습니다.

그러자 스승은 이번엔 기름이 가득한 종지를 주면서 "이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
지 말고 마을을 다녀오라"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
왔습니다.

스승은 "너는 마을을 다녀오는 동안 기도를 몇 번 했느냐?" 하고 묻자
그는 "기름이 넘칠까 조심하느라 한번도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"라고 대답했습니
다. 이에 스승은 말하길 "기름 그릇 하나가 하나님을 한번도 생각하지 못하도록
너를 묶어 두었지만, 그 농부는 아내와 어린 자식을 위해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도
하루에 두 번은 하나님을 생각했다"라고 하였습니다.

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내어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함에 죄스러워하고 있습니
다.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, 그
'진실된 삶'으로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요란한(?) 봉사 활동을
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견줄 바가 못 됩니다.

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그 또한 피흘려 신앙을 지킨 순교 못지
않은 귀한 삶입니다.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
것입니다
- 빈자리의 행복중에서 -

◀남편 기 살리는 말▶

“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?”

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
“피는 못 속여”

◀아내 기 살리는 말▶

“애들이 당신 닮았나봐”

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
“애들이 왜 저 모양이야?”

